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제12회 전국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공깃돌
수상내역	최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
작가	최병희
공모분야	시나리오
장르	-
소재	직지
시놉시스	<p>지수는 반푼(인터넷 상에서의 대화창)에서 엄마 아빠도 없는 고아고 돈도 없이 가난해서 같이 지내면 나쁜 일이 생길거다라고 말하는 소담이의 말에 의해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된다. 그러나 지수는 인터넷이 되지 않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다만 반 친구들끼리 서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라는 주연이의 말에 반푼을 하고 싶어 하고 인터넷이 되는 핸드폰을 갖고 싶어 한다.</p> <p>한편 같이 놀아주던 주연이 마저 소담이가 최신폰으로 바꾸고 팔빙수를 쓴다는 말에 지수로부터 멀어져간다. 모든 게 인터넷이 안 되는 고물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지수는 할머니에게 핸드폰을 바꿔달라고 말한다. 그러나 가진 돈이 없는 할머니는 선뜻 사주지 못하고 고민이다.</p> <p>학교가 끝난 후 공기놀이를 하러 지수와 주연이 흥덕사 절터로 가기로 되어있는 것을 안 소담이는 일부러 지수의 필통에서 공깃돌 두 개를 쓰레기통에 버려 공기놀이를 할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는 지수를 따돌리고 주연과 공기놀이를 하자고 하지만 지수도 같이 가고 싶다고 한다. 할 수 없이 지수를 데려가지만 소담이 공깃돌을 버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지수는 공깃돌이 없어 놀이에 함께 할 수 없게 된다. 심심해진 지수는 땅에서 빛나는 공깃돌 모양의 활자를 발견하고, 별정계 부어 올라있는 지수의 손등을 본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유품인 쌍가락지를 팔아 지수가 그렇게도 갖고 싶어 하던 핸드폰을 사 주게 된다.</p> <p>학교 미술시간에 지우개로 도장을 만든다. 숙제로 일기쓰기를 내주는데 지수가 그날의 느낌과 상황을 잘 적어서 선생님께서 칭찬을 듣는다. 그것이 못마땅한 소담과 주연은 지수 몰래 필통에서 공깃돌 활자를 한 개 꺼내가고 그것을 모르고 있는 지수는 할머니가 사주신 핸드폰을 보고 신이 난다.</p> <p>(-중략-)</p>

## 공깃돌

### #1. 햇살이 따스한 봄. 홍덕사 앞마당

홍덕사 금당과 삼층석탑을 카메라 가득 담아가다 마당을 비추면 절터가 남아있던 돌 받침대가 보이고 모래가 깔려있는 마당 귀퉁이에 돌맹이인 듯 공깃돌 모양의 조그마한 활자가 햇빛에 반짝 빛을 낸다.

### #2. 지수 집. 아침

반 지하. 전구를 켜 놓았지만 실내는 어둡다. 특별한 살림살이나 가구가 없고 작은 부엌 하나에 거실이 있고 작은방 한 개가 있다. 거실 한 귀퉁이에 이부자리 잘 개져있고 작은방엔 옷장과 옷걸이 작은 책상이 하나 있다. 옷걸이에 약간의 할머니 옷과 여자 아이 옷 걸려있다.

할머니 : (지수 안아주며 )우리 강아지 핵교 잘 땡겨오고 잉,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놀어어

지수 : 네 할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는 지수의 뒷모습을 보며

할머니 : (쫄쫄) 불쌍한 것

### #3. 학교 교실 안. 쉬는 시간

아이들 둘씩 셋씩 이야기 나누고 지수 옆자리인 소담에게 주연과 지수가 나누는 소리 들린다.

주연 : 지수야 이따가 끝나고 또 하는 거다.

지수 : 당근이지

지수와 주연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소담이 지수가 떨어지자 주연에게 묻는다.

소담 : 지수랑 학교 끝나고 뭐해?

주연 : 우리는 학원 안가니까 절 마당에 가서 놀아

소담 : 재미있어? 뭐하고 놀아?

주연 : 응. 붙잡기 놀이도 하고 공기놀이도 하고

### #4 학교 앞

학교가 끝나고 소담이 중형차인 엄마의 차안에서 지수와 주연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부러운 듯이 쳐다본다. 핸드폰을 꺼내 반톡( 반 아이들끼리 하는 톡)에 지수는 엄마 아빠도 없는 고아고 돈도 없이 가난해서 같이 지내면 나

뽀 일이 생길거야 라고 적는다.  
반 아이들의 핸드폰 문자로 그 말은 빠르게 번져나간다.  
그래?  
지수가 고아야?  
가난하대  
나쁜 일?  
무슨 일?  
몰라  
사람 괴롭히는 일인가?  
이모티콘 (웃음모양)  
정말  
수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아이들의 대화창 웃는 아이들의 얼굴

#### #5 홍덕사. 낮

모래마당 한 쪽 옆으로 아이들 모습 보인다. 가까이 가보면  
주연과 지수 공기놀이를 하면서  
주연 : 네 짝꿍 소담이 개 어제 반푹에 네 얘기 올렸던데  
지수 : (공기알을 집으면서 주연 쳐다보면) 내 얘기? 뭐라고?  
주연 : (손을 내저으며)아 아니다 너 스마트폰 아니지  
지수 : 응 할머니가 돈 생기면 사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돈이 없나봐  
주연 : 우리 반 애들 모두 반푹에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재미있는데.  
지수 : (공깃돌을 꺾어 받다가 푹 떨어뜨리며) 그래? 그렇게 재미있어?

#### #6 학교. 쉬는 시간

쉬는 시간에 소담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잘 보이도록 들고는 이것저것 버튼을 눌러보고 있다. 옆자리의 지수는 그런 소담의 모습에 별 관심이 없이 공책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고 그 모습을 뒷자리에 앉아있는 주연이 본다. 핸드폰이 새 것이다.

주연 : 소담아 너 핸드폰 바꿨어?

소담 : 응 아빠가 바꿔줬어

그 말에 친구들 소담이 자리 주위에 하나 둘 몰려든다.

반친구 1: 어디

반친구 2: 어디

지수는 소담이의 옆자리라 친구들이 몰려드는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모양새다. 지수도 그제야 소담의 핸드폰을 쳐다본다.

주연 : (감탄사를 연발하며) 우와 야 짱! 굉장히 좋아 보인다.

소담 : (자랑하듯) 이거 최신폰이야. 핸드폰 가게에서 제일 비싼 거래.

친구들 한 번씩 만져보며 부러운 표정이다  
지수가 자신의 폴더폰을 만지작거리며 부러운 듯 소담의 핸드폰을 본다. 지수가 만지려한다. 그때 소담이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 ) 빼앗는다.  
소담 : 안돼 이거 아무나 만지면 고장 나  
지수 : (무안해하며) 미안. 나는 애들도 만져봐서…….  
반 친구1 : (지수 폰 보면 ) 야 지수 폰 완전 고물폰이다.  
지수 : (얼굴 빨개지며 작은 목소리로 ) 고물폰 아니거든  
반 친구2 : 그거 인터넷 안 돼?  
반 친구1 : 아직도 인터넷 안 되는 고물폰 쓰는 애는 지수 밖에 없을거야  
주연 : 지수야 할머니한테 바꿔달라고 그래  
반 친구 2 : 그래서 지수가 반푼에 안 들어 온거구나  
친구들 수군수군 거리고 그러는 사이 담임선생님 들어온다.  
담임선생님 : 수업 준비 안 해놓고 뒹돌하고 있어.

#### #7 집. 저녁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핸드폰 광고가 나온다. 마늘을 까고 있는 할머니를 한 번 보고는 옆으로 다가앉으며 마늘 까는 걸 돕는 지수  
할머니 : 손 매워  
지수 : (눈치 보며 조심스럽게) 할머니 나 핸드폰 바꿔주면 안돼?  
할머니 : 왜 핸드폰 고장 난 거?  
지수 : 아니 그게 아니라 애들은 전부 반푼하는데 나만 못해서(말끝을 흐린다)  
할머니 : (마늘 까던 손을 멈추고 쳐다보며) 뭐 우리 강아지가 반장을 못하?  
지수 : (답답하다는 듯) 아니 반장이 아니라 반푼  
할머니 : 반푼 그게 뭐여 공부하는겨?  
지수 :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다 뭘 생각이 난 듯) 뭐 그런 거 비슷해.  
할머니 : 아무 말 없이 그저 지수를 바라본다.  
지수 : 할머니~바꿔주는거지?  
할머니 : 그게  
지수 : 왜 이번에도 돈 없어서 안돼?  
할머니: 아녀 우리 강아지가 갖고 싶어하는건디. 쪼매만 지들려봐  
지수 : 진짜 ? 진짜 바꿔 주는거다.  
할머니 와락 끌어안고 볼에 뽀뽀를 한다.  
할머니 : 그르케 좋아?  
지수 : 그럼  
할머니 근심걱정이 많은 얼굴이다.  
지수 자고 있고 할머니 자다 말고 일어나 불을 켜다. 그리고는 썩크대 밑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 펼쳐본다. 구겨진 지폐가 나온다. 주름진 손으로 세고 또 세

고 한다. 만원짜리가 열네장 천원짜리 두장 그리고 백원짜리가 다섯 개다.

#### #8. 핸드폰가게

가게 밖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선다.

젊은 핸드폰 직원 어서오세요 인사를 하면 할머니 천천히 직원 앞으로 걸어가

할머니: 반 뭐 되는 거 핸드폰 좀 줘 보여

가게 직원 : 반?

할머니 : 반득인지 반덕인지 뭐 그렇다던디

가게 직원 : 누가 쓰실거예요?

할머니 : 우리 손녀딸이 쓸거여요

가게 직원 : 아 반푹이요 인터넷 되는거요

할머니 : (생각난 듯 반갑게) 응 그러 반푹 나이 등께 들어도 금방 까먹어

가게 직원 : 그럼 (하고 핸드폰직원이 내놓는 기계)

할머니 : 이게 월매요?

가게직원 : 90만원이에요요 이거 이번 달 행사상품어서 저렴한거예요.

할머니: (놀라며 입을 딱 벌리고) 난 행사상품이고 뭐고 그런 건 잘 모르것꼬.

주머니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 유리 진열장위에 올려놓으며

할머니 : 이 돈에 맞는 걸로 줘 보여?

직원 한 장 한 장 돈을 세어본다 (142,500원이다)

가게직원 : 할머니 이걸로는 핸드폰 못 사요.

제일 싼 것도 30만원은 돼야지 인터넷 사용도 되고 해요

할머니 : 음썸?

가게직원 : 네 할머니.

안타까운 모습으로 뒤돌아 나오는 할머니. 주름진 얼굴이 초라한 옷차림에 더 겹  
게 보인다.

#### #9. 하교시간

주연이 책가방을 챙기고 있다. 그 때 소담이 주연에게 말을 건넨다.

소담 : 주연아 나랑 오늘 절 마당가서 공기놀이하자

주연 : 너 오늘 학원 안가?

소담 : 응 오늘 학원 쉬는 날이야. 내 핸드폰도 보여줄게.

주연 : 나는 지수랑 가는데

소담 : 매일 놀면서 하루 안 놀면 어때? 내가 팔빙수 쏘게 맛있게 하는 곳  
알아.

주연이 머뭇거리자

소담 : (다정한 목소리로 주연에게 팔짱을 끼며) 가자~

그 때 교실로 들어서는 지수

지수 : 주연아 많이 기다렸지 얼른 가자.

주연 : (머뭇거리며) 지수야 오늘 너 먼저가 나 소담이랑 공기놀이하고 갈거야

지수 : 나랑 공기놀이하기로 했잖아

주연 : (소담이 눈치를 본다) 그게 소담이가 같이 가자고 해서

지수 :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돼?

주연 : 소담아 지수도 같이 가면 안될까

소담 : (별로 내키지 않은 듯)그러든지.

주연과 소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그 뒤를 지수 터덜터덜 걸어간다.

#### #10. 홍덕사 마당

가방에서 플라스틱 공기를 꺼내는 주연과 소담

지수 : (필통을 뒤적이며) 어 분명히 여기에 두었는데

주연 : 왜 그래?

지수 : (울상으로) 공기가 세 개밖에 없어.

말하고는 가방을 뒤집어 탈탈 툰다.

소담 : 그럼 지수는 공기놀이 못하겠다.

소담의 희미한 미소 뒤로 학교에서 지수의 필통에서 공기 두 개를 꺼내 쓰레기통에 버리는 소담의 모습이 비추어진다.

주연과 소담이 재미있게 공기놀이를 하고 있다. 웃음소리가 절 마당에 울린다. 대여섯 발짝 떨어진 곳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속상한 얼굴의 지수가 앉아있다.

‘너 먼저 가’라고 말하던 주연의 목소리가 귓속을 울리면 주연과 재미있게 공기놀이를 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지수 : (혼잣말로) 나랑 더 친했는데. 이게 다 핸드폰 때문이야.

막대기로 흙을 흘트리며 툭툭 쳐대면 그 때 지수의 눈에 햇빛을 받아 반짝 하고 빛나는 것이 보인다. 막대기로 그것을 판다. 지수의 손에 들려있는 공깃돌 모양과 크기의 조그마한 두 개의 물건

#### #11. 지수 회상

꺾어서 받기의 공기놀이 연습을 혼자 하고 있는 지수 옆에서 바느질을 하는 할머니

할머니 : 우리 어렸을 적엔 돌맹이로 공기놀이를 했ندی 지금은 다 그르케 맹글은 장난감으로 허네

지수 : 돌맹이로 공기놀이를 했어?

할머니: 그럼 얼마나 재미났는지 몰러

#### #12. 홍덕사 마당

소담과 주연이 공기놀이를 재미있게 하고 있고 빠른 걸음걸이로 그들 곁으로 걸어온 지수 폴짝 그들 곁에 앉으며

지수 : (밝은 목소리로) 나도 공기놀이 할래

소담 : 넌 공깃돌도 없잖아

지수 : 여기 찾았어

지수 손바닥을 펼쳐보면 공깃돌 모양 크기의 작은 돌멩이가 놓여있다.

소담 : (어이없다는 듯) 그게 무슨 공기야

지수 :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 옛날에는 이런 돌멩이로 공기놀이 했다고

소담 : 헐~~

주연 : (잠시 생각하다가) 그래 시켜주자. 대신 지는 사람은 팔빙수 못 먹는 걸로 하면 되잖아 소담아

소담 : (내키지 않은 듯 천천히) 그러든지 (어이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고)

### #13. 빵집.

빨갭게 부어오른 손등에 카메라 비추고 팔빙수를 신나게 먹고 있는 손놀림.

화면 따라가면 지수 싱글벙글 좋아하며 커다란 그릇에 담긴 팔빙수를 퍼 먹는다.

지수 : 애들아 너희들도 얼른 먹어. 이 팔빙수 진짜 맛있다.

그 모습을 못마땅한 듯 팔짱을 끼고 쳐다보는 소담과 천천히 숟가락을 들고 팔빙수를 먹으려고 하는 주연

이빨에 팔 껍질이 붙은 줄도 모르고 한 번 더 히죽 웃는 지수.

### #14. 지수의 집. 밤

할머니가 손에 약을 들고 자고 있는 지수를 내려다보고 있다.

잠들기 전에 지수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린다.

할머니 : 우리 강아지 손이 왜 그러? 워디서 다친겨?

지수 : (얼른 뒤로 빼며)아녀

할머니 : (손 잡아 보려하면) 아니긴 뭐가 아녀

지수 : 핸드폰 때문에 그래 나도 새 핸드폰 갖고 싶어

할머니 이번엔 사주는 거지?

정말 정말 사주는 거지?

‘정말 정말 사주는 거지’ 지수의 간절했던 목소리 들리며 잠든 지수의 손등에 천천히 약을 발라주는 할머니

### #15 학교. 미술시간

담임선생님 : 자 이번시간에는 지우개 도장 만들기를 할 거예요 지우개에 글자를

새겨도 되고 그림을 새겨도 되고 어떤 것을 새기는 것은 자유예요.

아이들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 조각칼과 지우개를 꺼내놓는다. 준비물 안 챙겨 온 아이들에게 꿀밤을 한 대씩 주고 가는 선생님.

지수의 책상 위 지우개는 있는데 조각칼은 없다.

담임선생님 : 새길 때는 밑그림과 반대방향이 되게 양각으로 새겨 넣어야지 도장을 찍고 났을 때에 바른 모양이 되니까 꼭 신경 써서 파도록 하고. 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담임선생님 : 지수 지우개 준비했어?

지수 : 네

담임선생님 : 그럼 조각칼은?

지수 : (작은 목소리로) 조각칼은 못 샀어요

담임선생님 : 선생님 책상에 있는 조각칼 가져다가 사용하고 다 쓰면 가져다 놓도록 해

선생님 지수 옆 그냥 지나가면

반친구1 : 선생님 지수는 왜 꿀밤 안줘요?

담임선생님 : 꿀밤이 다 떨어졌어.

반친구2 : 지수만 맨날 봐주시고.

#### #16. 금은방

낮 시간 손님이 없는 금은방에 할머니가 들어서자 커피를 타서 내오는 금은방 여주인. 커피에는 손도 대지 않고 허리춤을 들추고 뺨지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놓는다.

금은방 여주인 : 할머니 이거 혹시 할아버지가 해주신 쌍가락지 아니예요?

할머니 : 반지에 그런 거 안 써 있을턴디 어르게 그리 잘 알우?

금은방 여주인 : 딱 보면 알아요.

할머니 : 아이구메 족집게네.

금은방 여주인 : 할머니는 지금 제일 중요한 사람한테 이것을 쓸 일이 생긴거구요.

할머니 : 참말로 용허네. 내 중요한데 꼭 써야 헐 일이 생겨서 그러니 금이나 잘 쳐 주~

금은방 문 열고 나오는 할머니

#### #17 교실

지수가 지우개에 지수라고 쓴 글자본을 반대로 붙이고 조각칼을 이용해서 지우개를 조심스럽게 파낸다.

그림을 붙이고 파내는 아이들도 있고 동그라미를 파는 아이도 있다.

소담이 지우개를 카메라에 비추면 글자본을 반듯하게 붙이고 파낸다.



담임선생님 : 자 다 봤나요?

학생들 : 네

대답하는 아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하며 급하게 조각을 하다 지우개 한쪽이 떨어져 나갔다고 안타까워하는 아이도 있다.

담임선생님 : 다 판 친구들은 앞에 있는 스탬프를 이용해서 자기가 판 도장을 도화지에 찍어보도록 해요.

지우개에 스탬프를 찍는다

하얀 도화지에 선명하게 찍히는 글자들, 그림들, 동그라미, 반대로 찍힌 글자.

도화지를 보며 웃는 아이들

#### #18. 핸드폰 가게 앞

전에 들렀던 그 핸드폰 가게를 등지고 할머니 조그마한 박스를 품에 안고 있다. 소중한 보물을 안듯 품에 안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방금 전 그 가게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다.

#### #19. 학교. 종례시간

담임선생님 : 오늘 숙제는 일기쓰기다.

학생들 : 우~일기쓰기 너무 어려워요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담임선생님 : 일기쓰기는 각자 본인의 기록이니까 있었던 일과 자신의 느낌을 꼭 쓰도록 해요. 일기를 쓰고 나면 나중에도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수가 있으니 숙제가 아니더라도 꼬박꼬박 쓰는 습관을 들이도록

학생들 : 그래도 뭐에 대해서 쓸지 잘 모르겠어요

담임선생님 : 그래 그럼 오늘 일기쓰기는 지우개 도장 만들기에 대해서 써 보도록 할까?

#### #20. 지수 집. 밤

할머니 거실에서 자고 있고 일기쓰기를 하고 있는 지수

입으로 말하면서 일기장에 글씨를 써간다.

제목 : 지우개로 도장 만들기

지우개를 파서 도장을 만들었다. 거꾸로 파야지만 찍었을 때 똑바로 된 글자가 나온다. 책도 이렇게 만드는 걸까?

(라고 말하며 쓰다가 생각난 듯)

지수 : 아~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공기놀이를 하면서 땅에서 주운 공깃돌도 거꾸로 된 한자가 쓰여 있었는데

필통에서 공깃돌 꺼내본다.  
스탬프를 찍어 공책에 찍는다  
지수 : 어 이거 내 이름 한자의 앞자와 똑같잖아  
가리킬 지  
공깃돌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다시 일기를 쓴다.

돌멩이 같지 않고 쇠 같다. 소담이랑 주연이랑 공기놀이를 했었는데 손등이 아파  
죽는 줄 알았다. 그래도 행운이 있는지 내가 공기놀이에서 이겼다. 행운의 공깃돌  
인 모양이다. 이제부터 이 지자가 새겨진 것을 내 이름 도장으로 사용해야겠다.  
끝~

빨간 색연필로 동그라미 한 곳에 가지고 있던 두 개의 활자를 찍는다. 많이 닳고  
낡아 보이는데도 스탬프를 찍자 글씨는 선명하게 나타났다. 가리킬 지자는 더욱  
또렷하다. 일기를 쓰고 난 책이나 공책등을 꺼내 모조리 지자를 찍어본다. 다 찍  
고 나서 빙그레 웃는다. 만족한 얼굴이다.

## #21. 교무실

일기쓰기 숙제 검사를 하고 있는 담임선생님  
빨간색 볼펜으로 답글을 써주며 웃는다.  
김선생님이 교무실로 들어와 자신의 자리인 담임선생님 옆자리에 앉는다.  
김선생님 : 정선생님 뭐가 그리 재미있어요?  
담임선생님 : 우리반 녀석들 일기쓰기 숙제요  
이 녀석은 내가 준비물 안 챙겨오면 꿀밤을 준다고 해서 정말  
꿀밤인줄 알고 준비물을 안 챙겨왔던거라고 그런데 왜 아픈 꿀밤만  
주는 거냐고 능청스럽게 나한테 한마디 하네요.  
김선생님 : 하하 요즘 애들 못 말린다니까요  
말하며 펼쳐져 있던 일기장을 한 개 집어든다. 지수의 일기장이다.  
스탬프로 찍은 직지글자 보이고  
김선생님 : 어 이건 직지네요. 이렇게 작은걸 어떻게 봤대요?  
담임선생님 : 어디요?  
김선생님 :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 글자요  
담임선생님 : 아 그건 판게 아니라 공깃돌로 주운거라고 하던데요  
김선생님 : 네? 주워요?  
담임선생님 : 지수 일기 읽어보면요.  
김선생님 지수의 일기장을 읽는다.  
김선생님 : 정말 이게 직지가 맞을까요?  
담임선생님 동그랗게 뜬 눈으로 쳐다보면

김선생님 : 아~ 왜~ 그 있잖아요? 직지 활자

담임선생님 : 에이 설마요

## #22. 학교 교실 안. 수업시간

지수가 반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일기를 소리 내어 읽고나면

담임선생님 : 지우개로 도장만들기도 잘하고 일기쓰기 숙제도 잘한 사람은 지수다.

공기놀이를 지우개 도장 이야기에 같이 넣어서 일기를 쓴 것도 좋았어. 그리고 지수 말대로 우리의 책도 비슷한 원리로 만들어 지는 게 맞아. 모두들 지수한테 박수. 참 소담이는 글씨가 거꾸로 새겨졌던데. 짝꿍 지수한테 지우개 도장 만들기 배워서 다시 파오도록 해

선생님의 칭찬하는 소리에 밝게 웃고 있는 지수.

야단맞은 소담은 얼굴이 일그러진다.

소담 :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말) 치. 행운의 공깃돌 좋아하네

벌려져 있는 지수의 필통 속에 공깃돌 두 개가 보인다.

선생님이 교실을 나가고 쉬는 시간

소담 : 나 그 공깃돌 한번만 만져 봐도 돼?

지수 : 안돼 너도 핸드폰 못 만져보게 했잖아

소담 : 자 (핸드폰 건네주고)

지수 : 그제야 필통 속에 있는 돌멩이를 소담에게 건네준다.

## #23 교무실

김선생님 : 나 그거 한 번 보고 싶어요.

담임선생님 : 네? 뭘요?

김선생님 : 아 왜 그거 있잖아요?

직지 활자요

담임선생님 : 아 그거요. 누가 유물에 관심 있는 선생님 아니랄까봐요.

김선생님 : 만약에 그게 직지활자가 맞다면 금액이나 가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담임선생님 : 그래요?

김선생님 : 그럼요. 세계에서 최고로 오래된 금속활자가 되는건데요.

담임선생님 : 내가 지수한테 한 번 가져다 달라고 말해 볼까요?.

김선생님 : 그래주시겠어요? 실물을 직접 보면 궁금증이 덜하겠지요?

장난스럽게 웃는다.

#### #24 교실 안

소담 : (큰소리로) 야 너 내 핸드폰에 무슨 짓을 한거야?

놀라는 지수 반 아이들 시선 둘에게 집중되고

소담 : 이거 안 되잖아. 너 때문에 고장 났잖아.

지수 : (당황한 얼굴로 머뭇거리며) 내가 고장낸 거 아니야

소담 : (큰소리로) 니가 고장낸 게 아니면 왜 글씨가 안 써지는데.

지수 : 정말이야 난 그냥 만져보기만 한거야.

소담 : 이 거지같은 게. 내 핸드폰이 부러우니까 일부러 망가뜨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지수 : 정말로 그냥 만져보기만 한건데

반 아이들 지수를 손가락질 하며 수군거린다. 지수 어쩔 줄 몰라 한다.

반 친구들의 핸드폰에 지수가 일부러 소담이 핸드폰을 부셔놓았다고 적고 또 빠르게 다른 친구들의 정말이야? 그렇게 안 봤는데 지수 정말 나쁘다등의 말이 쓰여진다.

지수가 그럴 줄 알았어.

소담이 핸드폰 일부러 고장 낸 걸꺼야

그렇지? 너도 그렇게 생각해?

응 나도 그런거 같아

나도

나도

여기저기서 대화창이 뜨면 또 새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진다.

#### #25 학교 교문 앞

주연과 소담 친구들 다 지수를 외면하고 지수 혼자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가는 뒷모습

지수 도로에 떨어져있는 과자 봉지를 발로 툭툭 차며 걷는다. 그 때 지나가는 아저씨 한마디 한다.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길거리에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면 어떻게 해.

지수 : 네. (혼잣말로 )내가 버린 거 아닌데

풀죽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억울한 듯 과자봉지를 줍는데 눈물 한 방울 뚝 떨어져 내린다.

#### #26. 지수 집

할머니 마늘을 까고 있다. 시무룩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서는 지수

할머니 : 우리 강아지 핵교는 잘 땡겨 온겨?

지수 : 네

대답만 간단히 하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책상위에 핸드폰 박스가 있다. 지수 박스를 풀어보고는

지수 : 할머니 이게 뭐야?

할머니 : 핸드폰 갖고 싶다고 했잖여. 어제 사 왔는디 깜박 헛어

지수 : 그럼 이게 정말 내꺼란 말이야?

할머니 : 그러 반덕인지 반덕인지 우리 강아지만 못하면 안되잖여

지수 : 할머니 고마워. 야 나도 이제 반톡할수 있다. (어깨위로 핸드폰을 들고 신나하며)

할머니 : 반덕이 그리 좋은겨

지수 : 그럼 할머니

할머니 흐뭇한 표정 짓고 지수 핸드폰의 버튼을 이것저것 눌러보며 신이 난 얼굴이다.

우울함의 그늘 따위는 보이지 않는다.

#### #27. 토요일 아침

선생님 전화가 걸려온다.

담임선생님 : 지수니? 너 그 글자가 새겨져 있다는 돌맹이 아직도 가지고 있니?

지수 : 네

담임선생님 : 그거 월요일날 학교에 올 때 가지고 와서 선생님 좀 보여줄 수 있겠니?

지수 : 네.

담임선생님 : 그게 공깃돌 모양으로 생긴거에 글씨가 있다고 했지?

지수 : 네. 저기 선생님 지금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담임선생님 : 지금?

지수 : 네 할머니가 반톡도 되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핸드폰 사주셨거든요

담임선생님 : 응 그래 지수 좋겠네

지수 : 네 해해.

전화를 끊고 필통을 뒤져서 돌맹이를 꺼낸다. 한 개밖에 없다. 지자는 있는데 직자가 없다.

지수 : (혼잣말로 ) 여기에 넣어놨는데?

필통을 쏘아보고 가방을 다 뒤져서 찾아보아도 없다.

지수 : 우선 이것만이라도 찍어서 보내드려야겠다.

#### #28 그 시각. 소담의 집

하얀 색깔 옷장에 공주 침대, 레이스가 달린 핑크색 커튼과 이불 한 눈에 보아도 잘 꾸며진 방이다.

주연 : 자 여기 (손바닥위에 직이라고 쓰인 지수의 돌맹이가 올려져있다) 네

가 핸드폰 고장 났다고 하는 틈을 타서 얼른 챙겼어. 근데 두 개 다 꺼내지는 못했어.

소담 : 응 잘했어.

주연 :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핸드폰이 고장 난 것처럼 한 거야?

소담 : 이 장금장치 버튼을 내가 눌러놨었거든

주연 : 아 그랬구나 (생각난 듯)내가 반쪽에다가 일부러 지수가 핸드폰 고장 낸 거라고 했으니까 지수 편드는 애들은 이제 없을거야. 선생님은 왜 지수만 이빠하는지 몰라.

소담 :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는데?

거지같은 걸

책상위에 직자가 쓰인 활자를 올려놓는다.

#### #29 그 시각. 지수의 방

책상위에 지자의 공깃돌을 올려놓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다. 그 순간 핸드폰의 후레쉬 빛에 강한 광선이 비추며 지수의 몸이 핸드폰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와 동시에 소담의 방 책상위에 올려져있던 공깃돌에서도 번쩍 하고 지수 방에서 보았던 강한 광선이 나오며 소담과 주연의 모습도 사라진다.

#### #30 커다란 관처럼 생긴 어두운 핸드폰 안

여러 컷의 사진 필름처럼 화면이 바뀌면서 부잣집에서 글공부를 하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보이다가 가난한 집의 여자가 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고, 벼슬이 높은지 관복을 입고 가마를 타고 가는 남자로 보이다가 가난한 집 여자가 부엌에서 먹을 것이 없는지 솥뚜껑을 열어보며 한숨을 짓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승복을 입고 있는 스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 스님의 모습과 겹쳐지며 빨려들어가는 뒷모습. 스님의 뒷모습이 화면 가득 보인다. 그 스님이 흥덕사라 쓰인 일주문을 통과하고 절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

카메라 디시 대문의 안에서 앞모습 잡으면

문 열고 들어오는 스님.

지나가던 스님들 쳐다보며 함장하고

마당을 걸어가면 앞에서 오던 스님이 말을 걸어온다.

달잠 : 석찬 어디 갔다 이제 오는가?

석찬 지수 :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다)

달잠 : 또 어디로 사라졌나하고 걱정 했다네

석찬지수: 저보고 석찬이라고 하는거예요?

달잠 : (빠히 쳐다보며) 당연하지

석찬 지수 :저는 석찬이 아니라 지수예요 정지수. 청주초등학교 3학년 5반 정지수라고요.

달잠 : 알았네 다음 생에 태어나면 여인으로 태어나고 싶다더니 참 어여쁜 이름일세 요즘 자네가 활자를 만드느라 며칠 밤을 새우더니 정신이 없는가보네. 내 활자장한테는 잘 말해 놓을테니 승방에 들어가 좀 쉬게나

석찬지수 : (어리둥절한 모습 역력하며) 저 여기가 어디예요?

달잠 : 석찬 자네 지금 무슨 소릴 하고 있는 쟤가? 여기가 어디냐니 ?

달잠 모를소리 라는 듯 외면하고 석찬 지수 옆 지나 저만치 가면 석찬 지수가 달잠을 부른다.

석찬 지수 :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 목마른데요. 물 좀 주세요

달잠이 손으로 가리키는 곳에 우물이 있다. 석찬 지수 그리로 걸어가 우물물을 한 바가지 떠서 마시려다 말고 바가지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진다.

다시 일어나 천천히 바가지에 물 다시 떠서 보며

석찬 지수 : 아저씨는 누구예요?

똑같이 따라하는 바가지속의 물에 비친 스님

손으로 눈을 비비고 다시 바가지에 비치는 모습 쳐다본다.

물이 흔들린다.

핸드폰 광선. 커다란 관처럼 생긴 터널. 모습이 바뀌던 모습. 떠오르고

그때서야 자신이 서서히 어딘지 이상한 곳에 와 있다는 것을 직감하는 눈빛. 사방을 둘러보고 바가지 바닥에 내려놓고 우물물에 자신의 모습을 다시 비추어본다.

커다란 눈 오뚝한 콧날에 과묵한 듯 도톰한 입술의 잘 생긴 스님이 우물물 안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

소용돌이 치듯 우물물이 흔들린다.

### #31. 정국민의 집

정국민 :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요?

심재부 :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두 그러시오

그 계집이 내 앞에서 꼬리를 쳤다하지 않소

정국민 :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심재부 : 나는 없는 소리는 못하는 사람ियो. 그리고 설령 내가 그 계집을 취했다해도 다 아는 처지에 이렇게 뽀뽀하게 굴게 뭐 있소. 내가 그보다 더 괜찮은 아이를 대감께 주리다.

정국민 : (소리를 높혀) 대감

심재부 : 그게 싫으시면 그 계집의 몸값을 쳐주면 되지 않겠소?

정국민 :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심재부 :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그럼 나보고 뭘 어찌라는 게요?

정국민 : 사과를 하시오. 그 아이에게

심재부 : 사과요?

어허 이런 보자보자하니 못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도포자락에서 꺼낸 돈꾸러미를 탁자위에 던지며

심재부 : 이 정도 돈이면 그런 계집 열은 살 수 있을 것이오

정국민 : 이게 어디 돈으로 되는 일입니까?

심재부 : 그럼 어찌시겠소 나를 관아에 밀고라도 하겠다는게요?

정국민 : 대감의 무례함을 뉘우치고 사죄를 하라는 말이 아니오

심재부 : 그깟 노비 계집 하나를 가지고 쳇 (벌떡 일어나 나간다) 일 없습니다.

### #32. 달잠의 집 앞

곳간 문 앞에 사람들 바가지들 가지고 길게 늘어서 있고 쌀을 퍼서 담아주는 모습

달잠 :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힘내세요.

마을 사람1 :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 2 : 아이고 이렇게 지체 높으신 양반님께서 미천한 저희들을 사람 취급해 주시고 이렇게 양식도 나눠주시니 이 은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 #33. 묘덕의 집

담 너머로 달잠의 모습을 훑쳐보는 묘덕

묘덕 : 어쩔 저리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심재부 : 무얼 그리 보고 있느냐?

묘덕 : (깜짝 놀라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재부 : (건너다보며) 잘난척하는 저런 것들의 모습이라니. 지금 있을때 그나마라도 누려보라지 흥

묘덕 :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심재부 : 그건 내가 알 것 없고 어찌됐든 이제부터 저 집에는 눈길도 주어진 아니 될 것이야.

### #34. 사랑채

심재부가 심각한 얼굴로 무언가를 하인들에게 지시한다.

### #35. 어두운 마당 귀퉁이

하인들이 다시 대 여섯 명의 장정들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

### #36. 며칠 후 달잠의 집 곳간 앞

길게 늘어선 행렬에게 쌀을 나누어주고 그 쌀을 받아 든 사람들이 한마디씩 한다.



심재부 하인들에게 돈을 받았던 장정들이다.

장정1 : 대감마님 은혜가 하늘에 다올 것입니다.

장정2 : 대감마님은 우리 미천한 것들의 우두머리 . 왕이시웁니다.

여기저기서 맞소 맞아. 맞아 암만 그렇고 말고

장정 1 : 우리 대감마님 같은 분이 나라를 다스려야 만백성이 고루 평안할텐데요.

장정 2 : 그러게나 말입니다.

쌀을 받던 다른 사람들도 만세를 외친다.

달잠 : (당황해하며) 아니 그런 말들은 삼가시오

### #37. 묘덕의 집 사랑채

묘덕의 아버지 : 시킨대로 잘 했느냐?

장정들 : 네

묘덕의 아버지 :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흥 제깃놈이 나랏님도 못하는 가난을 구제  
라도 할줄 아나보지. 감히 네깃놈이 천한 노비년 하나 때문에 날  
능멸해

### #38. 달잠의 집

포졸들 들이닥친다.

대역죄인은 당장 나와서 포박을 받아라

안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달잠의 가족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있고

정국민의 처 : 대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정국민 : 아무래도 무슨 일인가 모함이 있는 모양이요

(목소리 다급하게) 달잠아 어서. 어서 너는 이곳을 피하거라.

달잠 : (눈물을 흘리며) 아버님

정국민 : 사내 대장부는 무슨일이 있어도 눈물을 보여선 안되느니라.

꼭 살아남아 우리 가문의 누명을 벗어야 한다.

뒷문을 통해 달잠과 하인이 집을 빠져나온다.

### #39. 묘덕의 집 뒷마당

묘덕 들어서다 하인들 주고 받는 소리 대문 뒤에서 듣는다.

하인 1 : 어허 정대감님 불쌍해서 이일을 어찌

하인부인 : 그러게 왜 그런 일에 당신이 나서요 나서길

하인 1 : 그럼 어떻게 해 우리 나으리가 시키는 일인걸 안하면 당신과 내 목숨이  
온전할 것 같어?

하인부인 : 그렇다고 죄없는 사람을 역적 만들어요?

하인1 : 시끄러워 누가 들어

#### #40. 산속

뒤를 쫓는 관군을 피해 숲속으로 도망치는 달잠과 하인  
관군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산비탈에 몸을 숨기고 있던 하인의 뒷목을 움켜잡는 커다란 손  
놀라는 표정의 달잠  
그러나  
쌀을 나누어 줄때 보았던 거지가 달잠을 알아보고는 자신들의 은신처로 데리고 간다.

이곳에는 석찬이라고 하는 들어온 지 얼마되지 않는 거지가 있다.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달잠에게는 각듯이 대하는 거지들을 보고는 달잠에 대한 질투의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거지들끼리 주고받는 소리를 듣는다.  
거지 1 : 하루아침에 대역 죄인으로 몰려 쫓기는 처지가 되었으니 이렇게 딱한 일이 어디 있소  
거지 2 : 그러게나 말이오 나라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게지  
거지 1 : 우리가 입은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만큼 도와야지  
석찬이 몰래 거지소굴을 빠져나와 급하게 마을로 들어선다.

#### #41. 석찬 관가에 들어서다

관가에서 나오는 묘덕의 아버지와 마주친다.  
묘덕의 아버지 관가로 들어서는 석찬을 흘끗 보고는 이내 걸어나간다.

#### #42. 거지소굴

관군들이 거지소굴을 에워싸고 있다.  
대역죄인 정국민의 자는 당장 나와서 포박을 받으라  
웅성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거지소굴  
거지 1 : 나가시면 안됩니다. 동굴로 통하는 다른 길을 이용하시어 빨리 몸을 피하십시오  
달잠 : 자네들을 두고 나 혼자서 이리 도망칠수는 없네 나를 찾는 것 같은데 내가 나가서 저들을 따르겠네  
거지 2 : 그러실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에게 맡기시고 제발 목숨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소인들이 대감 마님께 입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는 길입니다.  
하인 : 어서요 도련님  
하인의 손에 이끌리어 뒷문으로 도망치는 달잠  
멀리서 거지들이 관군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거지소굴도 불에 타는 것이 보인다.  
관군1 : 저 안에 있었으니 죽은 게 확실해

관군2 : 자 그만 가세  
관군들 사라지고  
나무 뒤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하인과 달잠  
천천히 발길을 옮긴다.

#### #43. 숲속

갑자기 똥이 마려운 관군1  
먼저들 가게 나는 불일 좀 보고 가야겠네.  
관군2 : 자네는 뒷문 단속을 못해 큰일일세 그러.  
관군1 : 그러게 일만 치르고 나면 이렇게 신호가 오니 원 나도 죽을 지경일세 그러  
관군2 : (사라져가며) 그나저나 산속에 백년묵은 여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앞문 조  
심도 하고 얼른 오게나 짹짹  
관군1 : 허허 알았네

숲속으로 사라져 불일을 보고 저린 다리를 펴며 코에 침을 바르고 일어나 일어나오  
다

몸을 피해 일어나오던 하인과 달잠을 딱 마주친다.

관군1 : (허리춤을 추스르며) 어디가는 길이요

하인 : (하인 잔뜩 긴장하며 벌벌 떠는 듯) 그게 저  
감나무골에 일이 있어 가는 길입니다요

관군1 : 감나무골 그런곳이 있었나

가보게 하고는 잠깐 손짓으로 부르고 하인과 달잠을 불러세워놓으며

관군1 : 어째 좀 수상한데.

바지춤을 뒤적여 초상화를 꺼내는데 바로 그 초상화가 자신들의 얼굴인것을 알아차  
린 하인이 얼른 포졸에게 달려들어 둘이 싸움이 붙는다. 창에 찔려 신음을 하는 하  
인을 놔두고 이번에는 달잠을 향해 달려든다. 그 때 하인이 포졸의 다리를 잡고 늘  
어진다.

하인 : 도련님 얼른 피하세요

포졸이 하인을 창으로 다시 찌르려하자 달잠 옆에 있는 돌맹이를 들어 포졸의 머리  
를 내려친다.

포졸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달잠 놀라고 하인에게 달려가 끌어안지만 이미  
숨이 끊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하인 : (힘겹게) 도련님 이 산을 넘으면 절이 하나 나올 겁니다. 얼른 그곳으로 몸을  
피하십시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 놀라서 벌벌 떨며 산길을 오르는 달잠. 절이 보이자 그 자  
리에 폭 주저앉듯이 쓰러진다.

#44. 절

노승이 일어나오다 문 앞에 쓰러져있는 달잠을 발견하고  
며칠 시름시름 앓다가 노승의 보살핌으로 눈을 뜨는 달잠

백운스님 : 속세의 인연이 그리도 깊었습니까?

달잠 : 스님 제가 사람을 돌로 쳤습니다.

백운스님 : 나무아미타불

달잠 :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운스님 :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다 제자리로 돌아갈것입니다.

달잠 : 저는 이 하늘아래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는 외로운 중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백운스님 :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시련을 딛고 깨달음을 얻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달잠 : 스님 (눈물이 주룩룩 흘러내린다)

#45. 관가

석찬 : 죄인들이 어디있는지 알려주었으니 포상을 주시는거지요?

사또 : (힘상곳은 얼굴로 ) 뭐라 포상

여봐라 저놈을 당장 형틀에 묶어 볼기를 매우 쳐라

벌벌떠는 석찬 매 맞는 소리

석찬 : 아유 나 죽어유 왜 이러신대유

사또 : 뭐라 네놈이 아직도 네 죄를 모르는 것이렷다.

석찬 : 소인은 죄인이 어디있는지 알려준 죄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인 억울합니다요.

사또 : 네 놈이 돈에 눈이 어두워 죄인들을 빼돌리고 나서 내게 뒤늦게 알린 것이 아니더냐?

네 놈 때문에 우리 포졸 하나가 머리가 깨졌어.

석찬 : 아니옵니다. 소인은 억울합니다요

사또 : 매우 쳐서 저 입을 다시는 놀리지 못하게 하여라

실컷 두들겨 맞고

사또 : 그 놈이 어디있는디 찾아내서 내게 알리지 않으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알겠느냐?

석찬 : 네

피투성이가 된 채 길가에 버려진다.

#### #46. 관가 앞

길을 지나던 묘덕

갑자기 발목을 잡는 손길 소스라치게 놀라는데

석찬 :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묘덕 하인 : 저리 비키지 못해 감히 네까짓게 그나마 붙어있는 목숨줄을 놓고 싶은  
게냐?

감히 우리 아씨가 어느분인줄 알고

그리고 석찬의 손을 떼어내고 묘덕의 치맛자락을 털어낸다.

묘덕 : (하녀의 다음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되었다 가자

그 옆을 지나던 백운스님

백운스님 : 보아하니 불쌍한 중생인 모양인데 거두어 덕을 베푸시지요

묘덕 : 스님은

백운스님 : 저는 흥덕사에 있는 주지승입니다. 지금 여주에 있는 암자에 가는 길이  
라 거두어줄수가 없으니 아가씨께서 거두고 계시다가 거동이 가능해지  
거든 소인이 있는 절로 올려보내시면 어떠실런지요

묘덕 : (머뭇거리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녀 : 아가씨

묘덕 : 너는 얼른 하인들을 시켜 저 자를 집으로 업어 치료를 해 주도록 하라 일러  
라.

하녀 : 대감마님께서 아시면 어찌시려고 그러세요

묘덕 : ( 단호하게) 내가 알아서 할터이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나 하거라

하녀 : 네

#### #47. 심재부의 집

심재부 : 저지 녀석을 집에 들였다니 그게 무슨 말이나

묘덕 : 그게 스님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거동을 할 때까지만 보살펴주기로 약속하였  
습니다.

심재부 : 그깟 짐승만도 못한 목숨에 무슨 약속이 가당키나 한 일이더냐

묘덕 :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도리라  
들 있습니다.

심재부 : 그건 쥐뿔도 없이 잘난척만 하는 양반들이 떠들어대는 소리고 그렇게 하  
면 손해를 보는게 세상이치라는 것을 너는 아직 몰라서 하는 소리다

당장 밖에 내다 버리라 내가 이를터이니 너는 신경쓰지 말아라

묘덕 : 저는 아버지께서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여 역적의 누명을 씌웠다는 것을 알  
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을 물려 많은 돈을 벌어들  
이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재부 : 어디서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게야

묘덕 : 아버지 제발 그만 욕심을 버리시고 마음을 바르게 하세요

심재부 : 듣기싫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지껄이는데냐

묘덕 : 아버지가 그렇게 벌어들이는 돈으로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심재부 : 그런 일은 비밀비재한 일이야 겨우 그깟일로 네가 이 아비를 가르치려 드는 게냐

묘덕 : 그것이 아니옵고

심재부 : 닥쳐라

묘덕 : 아버지가 제 뜻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소녀 더 이상 이 집에서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심재부 : 네가 그래도

묘덕 : 그러니 제발 아버지. 스님과의 약속을 지킬수 있도록 저 자를 살려서 보내줄 수 있다면 아버지를 도와 장사를 배우겠습니다.

심재부 :정말이나

묘덕 : 네

심재부 : 그럼 좋다. 이 애비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이번일은 너의 뜻에 맡기마

묘덕 :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 #48. 묘덕의 집 안팎

방안에 누워만 있던 석찬 하루하루가 다르게 몸이 회복되어간다. 미음을 먹고 밥을 먹고 그리고는 이불을 걷어 잘 개 놓으며 일어나 마당으로 나오고 마당을 비질하고 땃돌에 놓여있는 고무신을 호호 불어 손목으로 깨끗이 닦아 가지런히 올려놓고 들꽃을 꺾어다 마루에 놓기도 한다. 묘덕을 몰래 훑쳐보기도 곧잘한다. 묘덕이 건너야 하는 개울에 튼튼한 징검다리를 놓아주기도 하고 매일아침 마당을 깔끔하게 비질해 놓기도 한다. 그러나 묘덕은 그런 석찬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 묘덕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던 석찬은 어느날 실수로 물둥이를 깨뜨려 마당 한가운데에 물을 잔뜩 엔질러 놓는다

묘덕 : 도대체 누가 이런짓을 한것이나

석찬 : 소인이 실수로 물항아리를 깨뜨려서 그만

묘덕 : 아니 너는

석찬 : 네 아씨 아씨 덕분에 목숨을 건지 석찬이라고 합니다.

묘덕 : 그래 이제 몸은 좀 괜찮은 것이냐

석찬 : 네

묘덕 : 그래 참 다행한 일이구나

그 일이 있는 후 석찬은 실수를 가장한 나쁜짓을 하기 시작한다. 묘덕의 관심을 끌기 위한 나름대로의 묘책인 셈이다.

가지런한 신발 흐트러놓기 그리고 신발 숨겨놓기  
그리고 나면 묘덕이 석찬을 불러 신발 찾아오는 일을 시키게 됨  
다 시들은 들꽃 마루에 올려놓기 그러면 가져다 태워버리라고 석찬을 부르게 됨  
개울의 징검다리 없애놓기 그러면 업고 건너줘야하는 행운이 생김  
묘덕 옆에 있어 기분 좋아하는 석찬과 고민하는 묘덕의 엇갈린 얼굴

#### #49. 흥덕사 절

절에 들어서는데 석찬과 묘덕  
마침 마당에서 비질을 하고 있는 달잠을 보게 된다. 아버지의 모함으로 숨어지내는 달잠의 모습에 묘덕은 반가움과 안타까움이 함께 묻어나는 얼굴 표정이 된다. 석찬도 달잠이 있는걸 알고는 깜짝 놀라는 얼굴이다.  
달잠 : (반가워하며) 자네는 내가 처음 들렀던 그 소굴에서  
석찬 : (말을 막듯이) 아 네. 이렇게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달잠 : 그래 자네만 살아남은 것인가?  
석찬 :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때 그곳에 없어서

#### #50. 회상

거지 : 어디를 쏘다니다 지금 오는거야? 우리 도련님 씻을 물을 좀 떠오도록 해  
석찬 : 그냥 개울에 가서 씻으면 되는거 아니예요?  
거지 : 뭘 잔말이 많아 너랑 이 도련님이 같은 줄 알아?  
석찬 : 거지 소굴에 들어왔으면 다 거지지 다른 건 또 뭐래  
거지 : 그래도 저것이 딱딱딱 말을 받네  
거지가 석찬의 머리를 한 대 때리면  
석찬 : 아이 대굴뻑이야  
물 뜨러 나간다  
그 때 들이닥치던 관군들

#### #51. 승방

백운스님이 반가이 묘덕을 맞는다  
백운스님 : 그때 그 아이입니까?  
묘덕 : 네  
(석찬을 보며) 스님의 부탁으로 너를 보살피 주었으니 스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하여라  
백운스님 : 감사의 마음은 소승이 아니라 부처님께 하면 될 일입니다.  
(석찬 바라보며) 몸이 다 나왔으니 이제는 세상에 대한 미움을 치유하는 일만 남았구나

석찬 합장하고 인사하고

석찬 : 저는 중이 되기 싫습니다. 아가씨 제발 저를 다시 아가씨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묘덕 : 그게 아버지와 한 약조여서 내가 어찌할 수가 없구나 대신 내가 자주 들르도록 할 터이니 스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도록 하여라

석찬 : (마지못해) 네

## #52. 절 오후

백운스님 : 네 어서 오십시오

묘덕 : 좋은 기별을 가지고 왔습니다.

묘덕 : 정대감님의 누명이 벗겨졌다고 합니다.

백운스님 : 오 그래요. 잘 되었군요

아가씨께서 그리 애를 쓰시니 일이 순조롭게 잘 되었나봅니다.

묘덕 : 이렇게라도 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숨을 쉴 수조차 없습니다.

제가 달잡 도련님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알려주시어요

백운스님 : 다 때가 있겠지요.

## #53. 절

백운스님과 달잡이 석찬에게 잘 대해준다.

가끔 몰래 메뚜기와 개구리를 잡아먹는 석찬

달잡 : 큰 스님께는 이런 모습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하고 따뜻하게 타이르는 모습

야단맞을 줄 알았다가 뒷머리만 뱅뱅 긁어대는 모습의 석찬

그렇지만 석찬 먼산을 쳐다보는 날이 많다.

몇 번씩 고개를 들어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인다.

백운 스님 멀리서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본다.

## #54. 절 마당 . 가을

석찬 반가운 마음에 뛰어나가지만 묘덕은 석찬은 본체만체하고 달잡 스님께로 먼저 간다.

따뜻한 옷과 목도리를 건네줌

당황해하는 달잡

묘덕 : 아무런 사심이 없는 물건입니다. 그러니 부디 거절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달잡 : 걸치고 있는 옷 한 벌이면 족한 중이 무슨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양말보면 큼직하게 난 뽕꾸) 얼른 발가락을 오므리고



묘덕 입을 가리고 미소짓고  
달잠 : 나무아미타불

#55. 시장

묘덕이 시장에서 버선을 고르고 있다.  
이정도면 맞겠지  
물건을 고르며 흐뭇해하는 표정이 가득하다

#56. 절마당. 아침

이번에도 석찬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달잠에게로 가려는지 석찬을 지나쳐 걸어가던  
묘덕  
걸음을 멈추고 석찬을 본다.  
석찬의 목에 묘덕이 달잠에게 주었던 목도리가 걸쳐져있다.  
묘덕 : 그것은  
석찬 : 아 이거요 달잠 스님이 저 주신거예요  
묘덕 : 아 그래~

#57. 승방

가져온 보파리를 풀어 겨울옷과 버선을 달잠 앞에 놓는다.  
달잠이 찻잔에 차를 따른다. 찻잔에서 맑은 소리가 난다.  
묘덕 : 스님께 드렸던 옷과 모든 것이 석찬의 것이 되어있었습니다.  
달잠 : 처음부터 그건 내 것이 아니었으니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 물건이지요  
묘덕 : 그래도 그건 제가  
달잠 : 제가 받았으니 제 것이나 제 것이 아니니 제 몸에 지니지 않은 것뿐입니다.  
묘덕 : 제가 스님을 불편하게 해 드린 건가요?  
달잠 : 보살님이 베풀고 싶어서 저에게 주었으니 그것으로 보살님이 하실 일은 다  
하신 것이 되고 저는 받았으나 제것이 아닌 물건을 몸에 지니지 않았으니  
또한 마음이 가벼운 것이지요  
묘덕 : 스님  
달잠 : 소승에게 마음 쓰지 마십시오  
묘덕 : 제가 스님께는 갚아야할 빚이 있습니다.  
달잠 : 아무것도 마음쓰지 마십시오  
마음 편히 돌아가시고 또 오실때는 마음 편히 오십시오

방문을 닫고 나오는 묘덕의 눈에서 주루룩 눈물이 흘러내린다.

#58. 마당. 오후

석찬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돌아서서 걸어가는 묘덕  
마구 뛰어가서 아가~(씨)  
부르려다 멈추고 뒷모습만 바라본다. 언덕길을 다 내려가 모습이 보이지 않을때까  
지.

#### #59. 점방. 저녁

가게로 들어서는 묘덕

점방에 앉아있던 석찬

석찬 : 지금 오세요

묘덕 : 아니 넌

절에 있어야 할 아이가 여기엔 어떻게

석찬 : 저는 중이 되는 거 죽을 만큼 싫습니다. 머리를 깎는 것도 싫고 다 떨어진  
승복을 입고 고기 한 점 못 먹는 생활도 진저리가 납니다. 시키시는 일이면  
뭐든지 다 할 터이니 제발 저를 아씨 곁에 있게 해 주십시오.

묘덕 : 당장 절로 다시 돌아가거라.

가서 달잡 도련님을 잘 보필해드리는 일이 나를 위해 내가 할 일이니라

석찬 : 아가씨 눈에는 달잡 도련님만 보이고 소인은 보이지도 않는 겁니까?

묘덕 :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날이 밝는대로 홍덕사로 돌아가도록 하거라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홍덕사로 돌아가지 않고 묘덕의 먼 발치에서 서성거리며 서  
성거리며 가게의 일손을 거둔다. 청소를 하고 무거운 짐을 먼저 들어 가게로 옮겨  
놓고 다른 일꾼이 꺼리는 심부름을 마다하지 않고 먼저 한다.

점점 익숙하게 점원이 되어가는 석찬

#### #60. 묘덕의 집

심재부 : 석찬이라는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온 연유가 무엇이나

묘덕 : 점점 주문의 양이 늘어나니 힘을 쓸 장정이 필요하였는데 마침 절에 간 길  
에 저 아이가 적합한 듯하여 데리고 왔을 뿐입니다.

심재부 : 근본도 모르는 그런 아이를 믿을 수 있겠느냐?

묘덕 : 근본이 다르다고 선한 사람의 본성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들었습니다.

심재부 : 그래도 애비말을 또 어길셈이나

묘덕 : 누구를 쓰든 그리고 어떤 방법을 써서든 돈만 많이 벌면 아버지의 뜻에 따  
라지는 게 아닙니까?

심재부 : 묘덕이 너

묘덕 : 염려마십시오 정대감님처럼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  
니다. 저는 아버지의 자식이니 제가 누군가를 배신할 수는 있을 지언정 제  
가 당하기야 하겠습니까?

말문이 막힌 듯 헛기침만 두 세 번 하고는 묘덕의 방을 나간다.

#### #61. 점방

점방의 규모를 좀 더 큰 곳으로 옮기기 위해 돈을 준비한 묘덕.

마침 밀려든 주문에 일꾼들이 짐을 옮겨다 주러 점방을 비우고

밖에 잠시 나왔다 들어서는 석찬

석찬 : 아가씨 아가씨 큰일났습니다.

석찬 : 제가 지금 점심을 내오려 집에 들렀는데 갑자기 아버님께서 쓰러지셔서

묘덕 : (깜짝 놀라며) 뭐라고

허둥대다가

묘덕 : 아 이걸 어쩐다. 나는 집에 가볼테니 네가 대신 다녀오너라

잔금으로 건넨 돈을 석찬에게 주며 바빠 점방을 뛰어나가는 묘덕

돈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어디론가 달려가는 석찬

#### #62. 묘덕의 집

헐레벌떡 집에 들어서며 아버님을 불러대는 묘덕

심재부 : 이 시간에 어인일이냐

묘덕 :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심재부 : 무슨 소리냐

묘덕 : 쓰러지셨다고

심재부 : 누가 그런 헛소리를

#### #63. 점방. 저녁

술이 취해 점방으로 들어서는 석찬

묘덕 : 어디를 다녀오는게냐?

점방의 잔금은 어찌하고?

석찬 : 저를 기다리신겁니까?

아가씨가 절 걱정해주신 겁니까?

묘덕 :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고 기별이 왔다. 어찌된 일이더냐?

석찬 : 아씨가 이렇게 날 걱정해주니 돌아오길 참 잘했습니다.

묘덕 : 또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렇게 했다는 말이나?

석찬 : 이렇게라도 아씨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면 열 번이고 백번이고 나는 나쁜놈이 되겠습니다.

묘덕 : 어찌 그리 당치 않은 말을 하는게냐

석찬 : 아씨

묘덕 : 너도 우리 아버지처럼 마음의 욕심으로 눈과 귀가 멀었구나.

욕심이 지나치면 판단이 흐려지는 법.

너한테 실망이구나 내 눈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거라  
 석찬 : 아씨 왜 제 마음을 흑흑흑  
 그러다 그대로 잠이 든다.  
 묘덕 하인을 시켜 방으로 옮겨주라 이르고 돌아선다.

#### #64. 홍덕사로 가는 산길

달잠이 탁발을 나갔다가 홍덕사로 돌아오는 길에 나뭇가지에 옷깃이 있는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언덕밑을 살펴보니 나무가 꺾여있고 누군가 구른 자국이 있다. 밑으로  
 내려가 보니 석찬이 쓰러져있다. 술 냄새가 코를 찌른다.

달잠 : 이보게 이보게 석찬 정신 좀 차려보게  
 들쳐업고 올라옴

달잠 : 아 나 내가 스님이라 전문용어는 쓸 수 없고 엄청 무겁네  
 어디서 이렇게 코가 뻐뿔어지게 탁주를 마셨누 그래. 나무아미타불  
 들쳐업으려니 꿈쩍도 안하자

달잠 : 부처님 제가 전문용어 딱 한번만 쓸게요  
 (하늘을 쳐다보며 손가락으로 딱 한번이라고 표시하며 윈크) 술을 쳐먹으려면  
 곱게 쳐먹을 것이지 이게 대체 무슨 지랄이여. 아이 힘들어

석찬 : 스님 그런말을 막 하셔도 됩니까?

달잠 : 응 뭐라고? 자는거 아니었나?

석찬 : 다 들었습니다.

달잠 : 이걸 큰스님께는 비밀로 해 주게나

나도 신이 아니고 사람인지라 술이 딱이 되게 마신 자네를 업고 가려니 나도  
 모르게 입이 거칠어지는군 . 아직 수양이 될 된 모양이네.

석찬 : 내가 점방의 잔금을 가지고 나와 술 한잔 마셨습지요. 그랬더니 절보고 나가  
 라지 않겠습니까?

달잠 : 큰 잘못을 하였군 그래.

석찬 : 그렇게 제가 잘못이라도 하여야 아가씨께서는 제게 눈길이라도 한 번 주신  
 다 말입니다. 그러니 관심을 받으려면 그길 밖에는 없었다구요.

달잠 : 관심을 끌수 있을런지는 모르나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이니 옳다  
 고 할 수 없는 일이지.

누구나 한 번의 실수는 있는 법이니 묘덕아가씨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보  
 도록 하게

석찬 : 스님은 제 마음을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 스님 때문입니다.  
 아가씨는 오로지 달잠도련님 달잠도련님 뿐이지요

달잠 : 그거야

석찬 : 도련님도 묘덕 아가씨가 좋으시지요?

달잠 : 어허 말이 지나치군

석찬 : 하긴 원수의 딸을 좋아할 수는 없겠지요?

아버지를 역적으로 만들고 집안을 풍비박산을 만들었는데 아무리 하늘님  
부처님이라도 용서가 안되겠지요?

달잠 : 뭐라고?

(놀란 낯빛이 선명하게 ) 그게 무슨 말인가

석찬 : 그럼 도련님은 모르셨어요?

달잠 : 나무아미타불

#### #65. (회상)

제가 스님께는 갇아야 할 빛이 있습니다.

달잠 : (야단치듯이 큰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렇게 사람을 모함하면  
안되는거네

석찬 : 모함이 아니라 이건 사실입니다.

달잠 : 설령 그 말이 사실이더라도 나는 안들은 것으로 하겠네.

업었던 달잠을 길가에 내던지듯 하고는 걸어가는 달잠

석찬 : 스님이 언제까지 그렇게 잘난척 할 수 있는지 한 번 봅시다.

#### #66. 관가

석찬 : 저기 사또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사또2 : 무덤하게 네 주제에 나를 직접 찾는게냐

너는 순서를 밟아 올라와 나를 만나야 한다는 작은 사실조차도 모르느냐  
이런 무식한 놈 같으니라고

석찬 : 송구하옵니다만 전에 직접 알리라고 하셔서

사또 2 : 그래 무슨 일이나

얼굴을 들어 사또를 보니 그 때의 그 사또가 아니다

석찬 : 어

사또2 : 왜 무슨 일이더냐

석찬 : 저기 사또님 얼굴이

사또2 : 내 얼굴이 뭐

석찬 : 소인이 아는 분이 아니라서

사또2 : 어허 그럼 전에 있던 사또에게 전할게 있다고 온 것이더냐

석찬 : 네

사또2 : 허허 미련한 놈

석찬 : 저기 그게 정대감님 역적의 자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또2 : 정대감이라면 정국민 대감 말이더냐

석찬 :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저 그 아드님이 도망쳤는데 찾아오라고 해서

사또2 : 그분이 역적의 누명에서 풀려난 것이 언젠적일인데 이놈이 죽으려고 환장을 하지 않고서야 이제와서 그 분의 억울함을 다시 상기시켜 내 마음을 이리 아프게 한단 말이나?

놀라고 당황한 표정의 석찬

사또2 : 여봐라 아직도 고을 사또가 바뀔줄도 모르는 죄  
돈에 눈이 어두워 억울하게 돌아가신 정대감의 영혼을 다시 울린죄를 물어 저놈을 정신이 번쩍 나게 매우 쳐서 옥에 가두어라.

#### #67 승방

석찬이 전해준 묘덕의 일로 괴로워하는 달잡에게

사또가 찾아옴

사또 : 석찬이라는 자가 도련님이 여기 계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얼마나 반가운지 한결음에 달려왔습니다. 이제 누명도 벗으셨으니 저와 함께 가지지요?

달잡 : 아닙니다. 제가 있을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마음을 갖도록 스승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 #68. 관가

사또 석찬에게 달잡이 풀어주라고 해서 풀어주는 거라고 말한다.

눈물을 흘리는 석찬

#### #69. 저녁 주막

피투성이가 된 몰골로 주막에 앉아 술을 마시는 석찬

쳐다보는 사람을 향해

석찬 : 뭘 쳐다봐 사람 처음 봐

당신들 눈에도 내가 미천한 것으로 보여서 사람취급도 않겠다는 게지?

달잡 : 술 주정은 그만 두게나

석찬 : 어라 이게 누구시더라

우리 아씨가 그리도 사모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달잡 : 누가 듣겠네

석찬 : 왜요 그럼 아니란 말입니까?

달잡 : 그래서 아씨 곁에서 나를 떼어내기 위해 밀고라도 했다는 말인가?

석찬 : (울면서) 스님은 제가 밋지 않으십니까?

달잡 :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하지 않았는가?

석찬 : 어 그 말은 부처님 말씀이 아닌거 같은데

달잡 : 아무려면 어떤가 내가 자네를 미워하지 않으면 되는거 아닌가?

석찬 : 스님 때문에 제 마음이 아픕니다.

달잡 : 엉덩이가 아픈게 아니고?

석찬 : 아 엉덩이도 아프지만 그보다 이 마음이 아파 죽겠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스님을 제가 이 석찬이가 두 번씩이나 관가에 고발을 했습니다. 저만 살아  
보겠다고 이 벌레같은 목숨을 연명해 보겠다고 욕심으로 눈이 멀어 저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스님을요.

흑흑흑

달잡 : 술이 많이 취한 듯 하이 어서 가세나.

석찬 : 스님께 지은 죄가 많아 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같지  
않은 자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달잡 : 내 용서가 무에 중요한가?

자네가 뉘우치면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일어서 비틀비틀 걸어가는 석찬

달잡 : 마음이 다 비워지면 꼭 돌아오게. 기다리고 있겠네.

#### #70 승방

묘덕에게 석찬을 용서하고 거두어 달라고 말하는 달잡

달잡 : 스님의 부탁이라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71 홍덕사 .며칠 후

석찬 :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시오.

백운스님 : 네가 돌아올 줄 알고 있었느니라

석찬 : 저 같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받아주시는 겁니까?

백운스님 : 너는 많은 아픔을 겪고 깨달음을 얻었지 않느냐

석찬 : 사람취급도 받지 못하던 저 같은 인간을 구해주신 아가씨나 달잡스님 스승  
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를 내어 죄업을 씻고자  
합니다.

백운스님 : 그래 잘하였다.

석찬 : 나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남이야 어찌됐든 상관없이

백운스님 :나무아미타불

석찬 : 그런데 묘덕아가씨나 달잡 스님은 남을 먼저 생각해주는 마음을 알려주셨습  
니다. 벌레같은 저도 어딘가에 쓰임이 있을거라는 생각을 하게 해 주셨습니  
다.

백운스님 : 많은걸 깨우쳤구나

석찬 : 스승님 덕분입니다.

백운스님 : 이 책을 읽고 네 마음을 보거라  
직지라 쓰인 책 표지 보인다.

석찬지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루룩 흘러내린다.

석찬지수 : 스승님

눈물이 물에 떨어지자 물결이인다. 물결이 일렁이며 우물물 앞에 서 있던 석찬지수의 모습이 다시 보인다.

#72 거지소굴. 저녁

거지대장 : (기지개 펴며) 아 배가 고프니까 잠도 안 오네. 동냥나간 애들은 왜 아직 안 오는 거야?

거지 : 그게 흉년인데다가 왜적들 때문에 나라까지 어수선하니까 동냥하기가 더 어려워져서 그런 거 같은데요.

거지대장 : 아 이젠 심심하기까지 하네

이럴 때 하늘에서 색짓감 하나 푹 떨어져주면 내가 잘해줄텐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둥그런 가마니 위로 떨어져 내리는 소담과 주연

거지대장, 거지 깜짝 놀라고 거지보고 더 놀라는 소담과 주연

거지 대장 : 하~ 선녀다. 하느님이 내가 착하게 사는 거지라서 소원을 들어 주신 모양이다. 그렇지?

거지 :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소담과 주연 주위를 빙글 빙글 돌며 누런 이를 드러내고 웃는 거지대장.

소담과 주연 코를 감싸 쥐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주연: 여기가 어디야

소담 : 그러게 여기가 어디지 이 냄새나는 애들은 또 뭐고? 아이 똥냄새(코를 감싸준다)

거지대장 : (여자 거지에게 재촉하며 명령하는 목소리로) 얼른 얼른 이 선녀의 날개옷을 벗겨. 하늘로 다시 날아가지 못하게.

여자 거지가 와서 억지로 소담과 주연의 옷을 벗기고 거지 옷을 입혀준다.

거지대장 : (흐뭇한 얼굴로 씩 웃으며) 아 이제 날개옷이 없으니 하늘로 다시 못 올라가겠지 하~이쁘다.

#73 저녁. 주자소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다니는 석찬지수

할머니 : (목소리 환청으로 들리고) 호랭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는겨

창고인 듯한 문을 열고 들어선다. 벽이 흙으로 되어있고 가마니가 깔려있는 방에 책상이 놓여있다. 서너 명의 스님들이 책을 보고 붓으로 글자를 베껴 쓰고 있다. 글자는 모두 한자다. 달잠 석찬지수를 본다.

달잠 : 이제 정신이 좀 드는가?

석찬 지수 : 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혹시 박물관인가요?

달잠 : 뭐라고? 박물관? 처음 듣는 말인데.

그게 뭐하는 관청인가?

석찬 지수 : 박물관 모르세요?

달잠 : 나무아미타불관세음보살

석찬 지수 : 지금 시대가 언제예요?

달잠 : (고개를 갸웃거리며) 지금 고려 우왕 3년 아닌가? 자네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겐가?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나

더위를 먹은 게 틀림없어 찻찻찻

카메라 절마당의 뜨거운 햇살 한 번 비춰주고

달잠 : (안타까운 눈빛으로) 석찬 제발 정신 좀 차리게

스승님의 유업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려면 시간이 없다네

석찬지수 : 유업이라뇨?

달잠 : 정말 생각이 안 나는겐가? 아니면 나와 장난을 하는겐가?

날 따라오게

석찬지수 : 네

달잠을 따라간다. 다른 방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몇몇 스님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달잠 : 자네와 나 그리고 여기 스님들은 스승님의 뜻에 따라 백운화상초록불 조직지심체요절을 인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네

석찬 지수 : 백 운 화 상 ?

(다음말이 생각안나 머리를 긁적이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억이 있기는 한데?

달잠 : 백운 스님 우리 스승님 말일세 (말을 끊었다가 한숨 한 번 쉬고 ) 음 천천히 기억이 날테니 지금은 그냥 직지하고 하세

석찬 지수 : 직지?

달잠 : 여기는 방금 전에 만들던 글자본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 곳이라네

밀납판 위에 글자본을 거꾸로 붙이는 것이 보인다.

석찬지수 : (미술시간 상상하며) 우리 지우개 도장도 이렇게 글자를 뒤집어서 붙였는데

달잠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표정으로 석찬지수를 쳐다본다.

한 옆에서는 스님들이 조각칼로 글자본에 따라 양각으로 새기고 있다. 다듬기도 하고 하나씩 잘라내기도 한다.

석찬지수 : 어~ 저건 조각칼이네

달잠 : 자네가 저 어미자 만드는 일을 제일 좋아하던 건 기억나는가?

석찬지수 : 어미자? 그런거는 잘 모르겠고요. 내가 지우개 도장 만들기는 잘했다고 선생님한테 칭찬은 많이 들었어요.

달잠 : 선생님?~내가 하느님 부처님은 들어봤어도 선생님이라는 말은 또 처음일세.

석찬지수 : 내가 여기서도 저걸 좋아했어요? (묻고나서 혼잣말하듯 ) 그래서 미술시간에 잘 했다고 칭찬 받은건가?

달잠 : (머리를 가로 저으며)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합장을 하며 앞서 걸어간다.

달잠 : 자 다른 방으로 가보세?

걸어가 달혀있는 문 앞에 서서

달잠 : (석찬 지수를 보며)이곳은 좀 뜨거울걸세

문을 열자 후끈하고 붉은 기운이 뿜인다. 펄펄 끓고 있는 췌물을 주형틀에 붓는다.

석찬 지수 : 저건 또 뭐예요?

달잠 : 저것이 금속활자라네.

석찬 지수 : 금속활자요?

달잠 : 그렇지. 청동을 녹인 췌물 말일세.

석찬 지수 : 많이 뜨겁겠는데요?

달잠 : 스승님이 우리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저리 뜨거웠을걸세

석찬지수 : 스님과 묘덕 아가씨의 마음도요

달잠 아무말 없이 앞서 걷는다.

#### #74 거지소굴

거지대장이 바가지에 아무렇게나 담긴 개밥 같은 것을 숟가락으로 떠서 소담에게 먹여 주려한다.

소담 : (손사래를 치며) 싫어 저리가 냄새난단 말이야

거지대장 : (밥그릇 들고 멧쩍어하며)그렇지 이렇게 한꺼번에 담은 밥을 귀한 우리 색시한테 주면 안되지

자 밥그릇 가지고 와

그리고는 가져온 그릇에 밥과 반찬을 따로 덜어 담는다. 더러운 옷에 자기가 먹던 숟가락을 닦고는 밥을 퍼서 먹여준다

소담 : 우엑 (거지대장이 억지로 먹인 밥을 토해내고)

더럽단 말이야 저리 치워

거지대장 :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럼 뭘 먹지?

거지 : 아 저 대장. 선녀는 이슬을 먹고 산다고 하던데요

거지대장 : 아 맞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 #75 주자소

췌물이 식은 주형틀을 깨트리고 나뭇가지처럼 형체를 드러낸 활자를 톱으로 자르

고 깎아 한 자 한 자 다듬어놓은 글자를 보자 석찬 지수가 주머니에 있던 지자를 꺼내 맞추어본다. 방금 전 완성한 활자와 똑같은 크기와 모양이다. 놀라는 표정이다.

석찬 지수 : 이것도 여기서 만든 건가요?

달잡 : (활자를 보며) 이걸 마지막장에 인쇄할 직지의 지자인데

이건 아직 안 찍어낸 것 같던데 자넨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나?

석찬 지수 : 아 그게. 그럼 이게 금속활자인가요?

달잡 : 그렇다네

석찬 지수 : 저기 그럼 혹시 대한민국이라고 아세요?

달잡 : 대한민국이라고? 어느 절에 계신 스님인가?

석찬 지수 : 스님이 아니라

석찬지수의 어이없어하는 표정 담으며

#### #76 거지소굴. 아침

순가락이란 순가락은 모조리 풀잎 끝에 매달아 놓은 풍경

거지소굴에서 나오는 거지대장

일일이 커다란 바가지에 순가락의 이슬을 담고 미소 지으며 소담에게로 간다.

바가지에 두 순가락쯤 되는 이슬을 조심조심 순가락에 옮겨 담아 소담에게 먹여 주는 거지대장

먹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소담. 그 모습을 보며 울먹이는 주연

#### #77 승방

달잡 : 직지를 편찬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시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묘덕 : (합장하며) 이렇게나마 제가 스님에게 지은 마음의 빛을 덜 수 있게 허락 해주셔서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달잡 : (합장하며) 다 지난 일입니다. 마음을 편히 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묘덕 : 제 아버가 잘못을 빙고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나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 자식된 자로서 마땅히 참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달잡 : 보살님의 마음이 함께 할 것입니다.

묘덕: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깨달음을 구할 수 있도록 책을 편찬하는 일을 좀 더 서두르셔야 할 듯 합니다.

달잡 : 무슨 일이라도요?.

묘덕 : 전라도에까지 왜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달잡 : 그렇게나 가까이요.

묘덕 : 네 보이는데로 전부 불살라버리고 초토화 시키니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달잡 : 그렇잖아도 최대한 서두르고는 있습니다만.

#### #78 주자소 아침

조판하는 과정(틀 안에 활자를 한 자 한 자 넣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 후 먹물을 묻혀 한지를 덮어 인쇄를 한다) 보여지면

석찬 지수 : (지우개 도장 스탬프로 찍던 것 회상) 나도 저거 잘할 수 있어요. 내가 할게요.

스님 : 잠을 자고 나니 이제 제 정신으로 돌아온 모양일세 그러

석찬지수 먹물을 많이 묻혀 잔뜩 번진 글씨의 한지 떼어내면

석찬지수 : (울상을 지으며 ) 어 이게 왜 이러지?

스님 : 자네 종아리 맞아야겠는걸

석찬지수 : 종아리요?

(두 손 흔들며) 나 안해요 안해

뛰어나가면 다른 스님들 꺄꺄꺄 웃는다

#### #79승방. 저녁

누워서 뒤척이다 말뚱말뚱한 눈으로 천정을 응시한다. 뜨거운 주형틀에 쇳물이 부어지던 게 떠오르고 흥덕사 절터에서 막대기로 활자를 파내던 생각 스탬프를 찍던 생각하다가 번쩍하고 터지던 핸드폰의 후레쉬 생각이 난다. 주머니를 뒤져본다.

만져지는 게 있다. 핸드폰

석찬 지수 :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치며 큰소리로) 아~ 이거야.

#### #80 주자소

능화문 표지에 붉은 색의 노끈으로 다섯 곳을 뚫어 책을 꿰매고 있다. 직지 상권과 하권의 책이 완성되었다.

달잠의 손에 들려있는 두 권의 책.

달잠 : 마침내 우리가 스승님의 유업을 받들어 책을 완성하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묘덕과 스님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석찬 지수

달잠이 하권의 마지막 장을 펼쳐 석찬 지수에게 보여준다.

달잠 : 여기 자네의 이름과 내 이름일세

마지막 책장의 석찬 달잠이라고 쓰여진 한자를 화면 가득 담아낸다.

석찬 지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른다.

석찬지수 :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거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친다)

#81 지수 집 오후

할머니 : 지수야 헬미 일 갔다 왔다. (지수방 열어보며) 집 잘보고 있었던겨?

대답이 없다

지수방 닫고 나오며

할머니 : 저녁때가 다 됐는디 워디가서 안죽두 안 온겨

#82 승방

석찬 지수 :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직지라는 책을 편찬하는 훌륭한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이제 집에 돌아갈래요

달잠 : 어디를 간다는 말인가?

석찬 지수 : (핸드폰 보여주며)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왔어요  
지금쯤 할머니가 저를 찾으며 많이 걱정하고 계실거예요.

달잠 : (핸드폰 만져보며) 처음보는 요상한 물건일세.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  
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는데.

석찬 지수 : 스님 만난 걸 잊지 않을께요

달잠 : 그러시게

자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 또한 부처님의 뜻이겠지

부디 잘 가시게

석찬 지수 : 네 안녕히 계세요

항아리 위에 활자를 올려놓고 사진을 찍는다

핸드폰 후레쉬 광선에 눈이 부시며 지수가 핸드폰 속으로 빨려들어간다. 그때 어  
디선지 소담이의 목소리가 들린다

지수는 엄마 아빠도 없는 고아고 돈도 없이 가난해서 같이 지내면 나쁜 일이 생  
길것만 같아

지수가 일부러 소담이 핸드폰을 부셔놓았다

정말?

지수 개가 그렇게 나쁜애였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지수 정말 나쁘다.

선생님이 이빠하니까 잘난척도 찢고

하하하 지수는 우리가 이렇게 반독을 해도 모를 걸

바보 지수

핸드폰 안을 통과해서 오는 동안 징검다리처럼 여기저기서 아이들 비웃는 목소리

가 들려온다.

#83 밤. 지수 방

지수 책상에 엎드려 자며 잠꼬대를 한다.

지수 : 아니야 아니야 내가 고장 내지 않았어

거실에서 자고있던 할머니가 지수를 깨운다

할머니 : 지수야 지수야 무슨 나쁜 꿈이라도 꾸게야

지수 : 할머니

할머니 : 어디갔다 온거여?

지수 : 으으응 그게

할머니 : 헬미두 기다리다 깜박 잠이 들었는지 들어오는것두 몰랐네

지수 : (할머니 품에 안기며) 할머니

지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다

할머니 :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며 ) 뭔일이여? 뭔 일이 있었던겨?

지수 : 할머니 나는 왜 애들처럼 엄마랑 아빠가 없어?

할머니 : 엄마랑 아빠가 읊긴 왜 읊어. 이렇게 지수 가슴속에 살아있는걸

지수 : 정말

할머니 : 그러면. 사고가 나서 지들이 죽으면서도 너를 살릴라고 꼭 감싸 안고 있었으니까 니 몸에는 엄마 아빠의 혼이 깃들어 있는겨.

그래서 너를 지켜주는겨

지수 : 진짜

할머니 : 글카고 너는 이 헬미한테는 젤루 소중한 새끼여. 암만 내 새끼 내 강아지 그라니까 기죽지말고 공부 열심히 하 그래야 엄마 아빠도 행복할꺼 아녀

지수 : (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며) 그렇게 할머니

할머니 : 불쌍한 것

지수의 등을 쓸어내리며 토닥여주는 할머니

#84 교무실

담임선생님이 뭔가 열심히 적고 있고 지수가 들어온다

지수 : 선생님 이거 두 개였는데 한 개는 잃어버렸나봐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담임선생님 : (하던 일 계속하며 고개들어 한 번 쳐다보고는) 어 그래? 거기 놓고 가

#85 교실 아침 조회시간

소담과 주연의 자리가 비어있다.

담임선생님 : 소담이와 주연이 금요일 날 저녁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혹시 아는 친구 있니?

서로 웅성거린다. 그러나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다.

담임선생님 : 소담이 엄마 말로는 방에 있다가 없어졌다고 하던데 그건 아닌 거 같이 들어서 어딜 간 것 같은데 아직 연락이 없는 모양이야. 너희들 중에 아는 친구 있으면 바로 선생님한테 알려 주도록 해 알았지?

반 아이들 : (서로 웅성거리다가 입 모아) 네

지수 : (혼잣말로) 방에 있다가 없어졌다고?

#### #86 교무실

지수 : (뛰어들어서며 다급한 목소리로) 선생님 선생님 아까 그~ 거~ 공깃돌 어디 있어요?

담임선생님 : 무슨 일이니?

지수 : : 얼른요 급해요

담임선생님 : (서랍열고 꺼내주며) 자 여기

#### #87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지수

활자를 놓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 어제보다 활자가 조금 더 작아지고 흠도 흐려져 있다.

지수 : (사진을 찍으면서 계속 기도하듯 중얼거린다) 제발 제발 소담이와 주연이 있는 곳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후레쉬 빛에 의해 핸드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지수

#### #88 거지소굴 . 밤

거지들 세상모르고 쿵쿨 코를 골며 자고 있다. 나무로 만든 우리 같은 곳에 소담과 주연이 갇혀 있는 것이 보인다.

소담 : 나 이제 어떻게 해

내일 거지대장과 결혼식을 올린다잖아

둘이 끌어안고 울고 있다

주연 : 여기가 어딜까? 우리 집에 돌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나 무서워죽겠어.

그때 그들 위로 떨어져 내리는 스님 차림의 지수. 소담 주연 깜짝 놀라면

석찬 지수 : (입에 손가락을 가져가) 췌

주연 : 아저씨는 누구세요?

석찬 지수 : 나야 나 지수

소담 : 지수라고 거짓말 마세요.

석찬 지수 : 정말이야 나 지수야 너희들을 구하러 왔어

소담 : 우리를 구하러 왔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아저씨말을 믿지요?

석찬 지수 : 내 짝꿍 소담이, 내 뒷자리에 앉은 주연이,

소담 주연 : 눈 동그래지면

주연 : 그런 거 말고 다른 거는~요

석찬 지수 : 내가 절에서 주운 돌멩이 같은 걸로 공기놀이해서 이겼어. 그래서 팔  
빙수 다 먹었잖아

주연 : 정말이네 그 일은 우리 셋이만 아는 얘기잖아.

소담 : 그렇더라도 이런 스님 아저씨가 지수라니 말도 안돼

주연 : (소담 보며) 우리가 이런 거지 소굴에 와 있는 건 말이 돼고?

소담 : (목소리 작아지며) 그건 그렇지만

주연 :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요

석찬지수: 나 정말 지수라니까

주연 : 응 알았어

소담 : 어떻게 우리를 찾았어?

석찬 지수 : 응 너희들이 학교에 안 왔다고 해서 여기 왔을거다라고 생각했어

소담. 주연 : 여기가 어딘지 넌 알아?

석찬 지수 : 응 여기는 고려시대야

소담 : 뭐 고려시대?

석찬 지수 : 우리는 지금 고려시대에 와 있는 거고

소담 :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거지?

석찬 지수 :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아는 건 내가 그때 주운 그 돌멩이를  
사진으로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후레쉬를 누르는  
것과 동시에 내가 이 시대로 떨어져 내렸다는 거야.

소담 : (얼굴이 밝아지며) 그럼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알아?

석찬 지수 : 응 그 돌멩이 아니 활자라고 하더라

그 활자에 사진을 찍으면 돼

주연 : 활자? 그렇다면 (소담을 본다)

석찬 지수 : 왜?

소담 : 맞아 우리도 책상위에 그것을 올려놓고 있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광선  
이 나타나면서 핸드폰 속으로 빨려들었어.

석찬 지수 : 너희도 그 활자를 찾았어? 아니면 혹시

주연 : 아 아 그게 소담이가 그걸 갖고 싶다고 해서

소담 : 나는 그냥 (머뭇거리다) 미안해 지수야 . 내가 주연이한테 그걸 네 필통에  
서 꺼내달라고 했어.



석찬 지수 : 내 생각대로 그랬구나.

소담 : 지수야 우리 좀 얼른 집에 데려다줘

나 여기 있다가는 내일 저 거지한테 시집가게 생겼다고 . 너무 무서워 배  
도 너무너무 고프고

주연 : 우리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

석찬 지수 : 그래 나만 믿어 이렇게 하면 집으로 갈 수 있을거야.

활자를 놓고 사진을 찍는다. 소담 주연 손을 마주잡고 좋아라한다.

석찬 지수만 광선에 싸여 사라지고 소담 주연은 그대로 거지 소굴에 남아있다.

명해있는 주연과 소담

주연 : 뭐야 지수만 가고 우리는 못가고 그대로 있잖아

소담 : 지수가 우리를 돌려주려고 일부러 데려가지 않은 게 아닐까?

주연 : 설마 우리를 구하러 왔다고 했었잖아

소담 : 말로만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꼴을 보려고 왔는지도 모르잖아.

주연 : 지수는 너처럼 그렇게 사람가지고 장난치는 애는 아니야

소담 : (따지듯) 그럼 나는 사람가지고 장난치는 애라는 거야? 뭐야?

주연 : 사실이잖아

소담 주연을 노려본다.

#### #89 학교 화장실

화장실에 다른 아이가 앉아 볼일을 보고 있는데 지수 그 앞에 나타남

학생 : (소리지르며)아~ 뭐야 넌

지수 : 아아 나? ( 휴지 떼어서 주며 웃고 ) 휴지 줄까?

학생 : 아아악 귀신이다.

지수 : 아 아니야 나 귀신 아니야

다시 활자를 놓고 핸드폰 카메라를 찍으면

사라지는 지수. 변기에 앉아있던 아이 기절하고

#### #90 거지소굴

소담 : 그래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나 반성 많이 하고 있어.

주연 : 반성한다는 애가 지수가 사라졌다고 금방 그렇게 말해?

소담 : 난 그냥 그래 내가 너무 심했어.

지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러 말하고

거지도 아닌데 거지라고 말하고 그래서(말끝을 흐리면)

주연 : 그래 우리가 너무 심했어

소담 : (흠쩍이며) 어떻게 해 이게 다 꿈이었음 좋겠어.

주연 : 꿈일지도 몰라 나를 한 번 꼬집어봐

소담이 주연을 꼬집어본다

주연 : 아아아 아파 그렇게 세게 꼬집으면 어떻게 해

소담 : 아 미안 난 꼬집어보라고 해서

주연 : 확실하게 꿈은 아니야.

소담 : 내가 지수를 괴롭혀서 벌 받는 건가봐

지수가 다시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주연 : 지수는 다시 올거야.

#### #91 홍덕사

절 마당 우물 둘레에 떨어짐. 중심 비틀거리다 내려서며

석찬 지수 : 하마터면 우물에 빠질 뻔 했네

그 때 주자소에서 황급히 뛰어나가는 외적 보인다.

이어서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주자소

불이야 불이야

승방으로 달려가는 석찬 지수

칼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달잠

달잠 : 왜구가 이곳 청주까지 쳐들어왔다네 얼른 몸을 피하시게

석찬 지수 : 스님 저랑 같이 가세요.

달잠 : 아니야 나는 이미 늙었네 이걸 잘 부탁하네.

석찬 지수 : 이진

달잠 : 여기가 다 타버리면 이것도 사라질걸세 그러니

직지 두 권을 건네준다.

석찬 지수 : 스님 스님

#### #92 거지소굴

소담 주연 울고 있는 앞에 석찬 지수 다시 나타남

석찬 지수 : 애들아 나 혼자만 사라져서 많이 놀랐지?

소담 : 지수야 정말로 다시 와 주었구나

석찬 지수 : 그림 너희들하고 같이 가야지

주연 : 고마워 이렇게 우리를 데리러 와줘서

소담 : 어떻게 된거야 우리는 왜 못간 거야?

석찬 지수 : 그 활자가 있어야 하나봐. 그거 어디 있어?

소담 : (주머니 뒤지다 생각난 듯 ) 몰라 우리가 선녀인줄 알고 거지대장이 우리

옷을 벗겨갔거든 아마 거기 주머니에 들어 있을거야

주연 : 저 거지 대장의 의자 밑에 상자 있지? 거기에 넣는 것을 보았어.

석찬 지수 : 시간이 없는데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홍덕사는 벌써 다 타고 있는 걸  
(생각하며) 음 어떻게 꺼내온다?

소담 : 왜구?

석찬 지수 : 응 여기도 안전하지는 않을거야.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야 해  
주연 :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93 거지소굴. 아침

주연 : 그래도 결혼식인데 이렇게 누더기 옷을 어떻게 입겠어요?

그러니 하루만 제 옷을 입게 해주세요.

거지 대장 : 너는 내 색시도 아닌데 무슨 선녀옷이 필요해?

주연 : 제가 옆에서 선녀옷을 입고 있어야지 다른 거지들이 정말로 대장님이 선녀  
님과 결혼식을 올린다고 우러러볼게 아닙니까?

거지대장 : 오 듣고 보니 그러네

그래 좋아 너만 선녀 옷을 입고 있도록 해

주연 : 감사합니다. 역시 멋진 대장님이십니다.

거지대장의 의자 밑에서 옷을 꺼내 주는 여자 거지. 어느 옷이 자신의 옷인지 잘  
모르겠다며 주머니를 뒤져보는 주연. 손에 잡히는 활자 한 개.

거지 옷을 입은 소담과 결혼식 순서에 맞춰 거지대장이 신나는 얼굴로 소담에게  
뽀뽀를 하려고 눈을 감고 입을 쭉욱 빼고 있는 순간

석찬 지수는 주연이 건네준 활자와 자신의 활자를 바위위에 올려놓는다. 자신의  
활자가 아까보다 더 작아져있고 글씨도 더 희미해져있다. 핸드폰의 카메라를 누른  
다. 밝은 빛의 광선이 소담과 주연 석찬 지수를 한꺼번에 감싸 안고는 핸드폰 속  
으로 사라진다.

소담이 빠져나가자 소담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있던 거지와 거지대장이 서로  
입을 맞추게 되고 소담이 아니고 거지인줄을 알게 되자 깜짝 놀라고 화가 나는  
거지대장

핸드폰 속으로 사라지며 석찬 지수의 품에서 툭 하고 거지대장 머리로 떨어져 내  
리는 직지책 두 권

거지대장 : (보물을 쓰다듬으며) 우리 선녀님이 내게 주고 간 증표인 모양이여.  
(눈물 흘리며) 잘 간직하면 다시 날 찾아오시겠지.

#94 밤. 지수네 집.

셋이서 다시 돌아왔다는 기쁨에 서로 얼싸안고 좋아한다.

지수 : (사진첩을 가리키며 놀이동산에서 찍은 단란한 가족사진) 우리 엄마랑 아  
빠야. 내가 어렸을적에 사고로 돌아가셨어.

소담 : 지수야 미안해 나는 그런줄도 모르고 너를 놀리려고만 했어

주연 : (지수의 손에 들린 핸드폰을 보며) 너도 핸드폰 바꿨어  
지수 : 응 할머니가 바꿔주셨어  
주연 : 그럼  
지수 : 나도 이제 반톡할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반톡에서 나를 욕하고 흥분  
거 다 알고 있었어  
주연 : 그런데도 우릴 구하러 와 준거야?  
지수 : 그럼 달잠스님과 묘덕아가씨는 내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다 용서해  
주시고 날 구해주셨는데.  
소담 : 뭐라고? 달잠스님 묘덕아가씨?  
주연 : 그게 누군데  
지수 : 응 있어 그런 사람  
(웃으며) 너는 내 친구잖아  
소담이는 내 짝꿍이고  
소담 주연 : 고마워.  
지수 : (주머니 뒤적거리며) 어 없다  
주연 : 뭐가  
지수 : 응 스님이 직지라는 책을 주셨는데 없어  
소담 주연 : 직지?  
지수 : 응  
할머니 : (거실에서 들리는) 내일 핵교 갈려면 얼렁 자야지. 뭘 그렇게 중얼거리  
고 있어?  
지수 : (소담 주연을 보며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 씻하는 표정) 네 할머니  
(소담과 주연보며) 다음에 우리 다시 가서 그 책 찾아오자  
주연 소담 : (손가락 동그랗게 )좋아  
주연 소담 지수 서로 보며 웃는다.

소담이 반톡에 자신의 핸드폰을 지수가 고장 낸 것이 아니라고 지수야 미안해라  
고 적는다.

주연이도 지수야 우리 앞으로 더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적는다. 반 친구들 하나 둘  
정말? 지수가 고장낸 거 아니었대. 다행이다. 그럴 줄 알았어 등 정다운 문자가  
많이 올라온다.

#### #95 교무실

지수 들어서면

담임선생님 : 지수야 어제 그 활자 김선생님 드려

김선생님 : 어디 볼까?

지수가 활자를 주머니에서 꺼내 김선생님에게 건네주면 김선생님이 소중한 물건

을 받아들듯 두 손으로 받아서 쳐다본다. 그냥 공깃돌하기에 딱 알맞은 금속덩어리다.

김선생님 : 이걸 그냥 금속덩이잖아. 지수야 이게 일기장에 찍었다는 그거니?

지수 : 네 (지수보며) 어 이상하다. 어제는 크기도 더 크고 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선생님 : 그걸 니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니?

지수 : (고개를 갸웃하며) 어 이상하다.

아 선생님 그런데 핸드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으면 글씨가 닳아요?

김선생님 : 글씨 핸드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글씨가 닳는다는 건 잘 모르겠고 오래도록 찍어낸다는지 알아내면 닳지 않을까?

지수 : (머뭇거리며) 선생님 저 궁금한게 있는데요 고려시대에 직지라는 활자가 정말 있었어요?

김선생님 : 그럼 금속활자로 찍었다는 직지 하권 책도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걸?

그나저나 직지를 어떻게 알았어?

지수 : 이걸 비밀인데요. 제가 어제 고려시대에 다녀왔거든요.

김선생님 : 뭐라고?

지수 : (활자를 가리키며) 그래서 이게 직지라는 활자인 것도 알았다니까요?

김선생님 : 응 알았다. 지수가 책을 많이 읽은 모양이구나.

지수 : 어 정말인데

지수 돌아가고 나면

담임선생님 : 김선생님이 찾으시던 활자가 아니어서 안타깝네요.

김선생님 : 지수가 일기장에 찍었다는 것이 아직 발견되지 못한 직지활자가 아닐까 조금 설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활자에 관심 갖고 있다는 것에 우리의 활자에도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핸드폰과 같은 정보의 시대 저변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은 활자니까요.

## #96 지수 집

카톡 카톡 카톡 핸드폰 카톡 들어오는 소리 들린다. 반독인 모양이다. 지수 핸드폰 열어보면

토요일에 흥덕사에서 공기놀이 할 친구들 모여라 문자 보이고

소담 : 팔빙수는 내가 쏜다.

나도

나도

야 재미있겠다.

친구들 말 주머니 올라오고

주연 : 지수 너도 올거지 꼭 와

문자가 올라오면

지수 : 그럼 당근 가야지 공기놀이 지는 사람 팔빙수 없기다.

친구들 좋아 웃는 이모티콘

엔딩자막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임과 동시에 우리 청주의 자랑입니다. 다함께 직지에 관심을 갖고 직지 찾기 운동에 온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